

제16회 대한
민국 종교예술제 의 일환
으로 처음 실시된 제1회 단편
영화제 에서 박관호씨의 '나무아미
타불 Christmas' 가 영예의 대상(문화
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불교와 기독교
간의 화합을 그린 이 영화는 동자
승이 자신의 여자친구 마리로부터
크리스마스날 교회에 초대받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
작된다.

南無阿彌陀佛



◇동자승과 그의 여자친구 마리를 통해 불교와 기독교의 화합된 모습을 이끌어 내는 영화 '나무아미타불...'의 한 장면.

두 종교간 화합·상생주제 '나무아미타불 christmas' 대상영예

제1회 단편영화제...총 60작품 응모

목사님은 교회를 찾은 동자승을 보고 특별한 손님이었다고 환영하며 동자승에게 X-마스 트리를 선물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격려까지 해준다. 선물까지 받아 기분좋은 마음으로 법당에 돌아와 보니 동자승의 마음을 벌써 헤아린 주지 스님이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잘 마당에 만들어 동자승을 환영한다는 게 즐거웠다.

이기원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나무아미타불 Christmas는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의 취지에 가장 잘 맞는 영화"라며 "특히 실제 스님과 목사를 출연시켜 사실적인 메시지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작"이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이외에도 총 60편이 응모한 이번 영화제에서는 최우수상에 로고스 필름의 '공간', 우수상에는 박민우의 고

등학생들이 제작한 '꽃씨를 뿌리는 마음'과 조홍식씨의 '가톨릭 중국사제서품', 장려상에는 김문홍 연출의 '집배', 이민경씨의 '동안거를 마치고 길을 나서다', 김경진씨의 '서머 스토리', 임병훈씨의 '설리의 저글링', 윤준호씨의 'MIX', 박수영씨의 '나의 사랑스런 아파트'가 각각 차지했다. 이 중에서 불교 영화인 '동안거를 마치고 길을 나서다'는 수행의 길에 막 걸터든 수행승이 출가 후 겪게 되는 고난을 극복하는 내용으로 지리산 천은사를 배경으로 촬영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15일 단편영화제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제6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영화제 개막식에는 양산 조계종 사회부장 스님을 비롯해 김기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배기선 국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윤청하 문화관광부 중무실장, 홍정화 전도교 중무실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jim1@buddhania.com

"종교화합 다룬 영화 꼭 만들고 싶었어요"



대상수상 박관호씨

"가끔씩 종교간의 불협화음 기사를 매스컴에서 접할 때마다 종교간의 화합을 주제로 한 영화를 꼭 한 번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한 '제1회 단편영화제'에서 '나무아미타불 Christmas'로 대상을 차지한 박관호(단국대 연극영화과 4년)는 자신의 종교가 중요하듯 타인의 종교도 배려해 주어야 함께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이번 작품의 기획의도라고 밝혔다.

강원도 고성 반야사와 오봉교회를 무대로 촬영했다는 박 군은 "현실 배타적인 두 종교(불교와 기독교)간의 화합을 두 어린이들의 연기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참종교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군은 이번 영화의 원작인 '동자승의 크리스마스'를 12월 10일 출간할 예정이다.

현대한국불교미술 세계에 알려

KOBA, 美산타모니카展 세계시장 개척 계기



◇미국 산타모니카 시빅 오토리움에 설치된 KOBA 전시 부스

현대불교신문사가 결성한 한국불교예술인연합(KOBA)의 미국 산타모니카 전시가 성황리에 끝났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전 'The Los-Angeles Arts of Asia and Oceania Show'에 '한국불교예술'을 주제로 독립부스를 운영한 KOBA는 한국불교문화를 현존 작가의 작품을 통해 세계인에게 알린 점에서 의미심장한 전시였다. 하지만 장르가 다양하지 못해 볼거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개막리셉션부터 전시 기간내 홍보를 한 진각 스님(사암연합회 부회장, 조계종 국제포교사는 "국제문화시장은 우리 불교문화의 위대 결고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며 "수작들을 많이 발굴해 우리 불교문화의 세계에 알려려는 개척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전통 한지로 만든 고바야시의 '조선통신사절단의 행렬'

종이접기의 달인 고바야시 일본 작가를 비롯한 30여명의 작품이 중앙승가대 중앙승가대학 3층 대강당에서 선보인다. 4대째 140여년에 걸쳐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고바야시의 작품을 필두로 동물, 반지, 꽃 등 다양한 작품이 종이의 표현 영역에 한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2002 한일 월드컵 공동 주최를 기념해 일본 전통 한지 인형으로 제작한 '조선통신사절단의 행렬'은 화려함과 정교함의 극치를 평가받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 20주년 범주스님 선화전 열어

선화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온 범주스님(속리산 달마선원장)이 26일까지 부산시청 제1전시실에서 부산불교교육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선화전'을 갖는다.

1966년에 전강선사 문화에 입산한 범주스님은 종익대 미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국내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가져왔다.

이번 전시에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다양한 모습의 달마도, 친근하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포대화상도, 경명주사로 그린 관음도, 한산수묵도 등 150여점의 달마선화화가 벽에 걸린다. 전시기간에는 박찬수(목아박물관장, 강민홍(기흥명인), 이명미(우바이무용단 안무가), 강경화(반소리보존회 부산지부장) 등을 초청, 축하 퍼포먼스도 펼친다.

범주 스님은 "선화는 수행의 한 방법이자 정진 후 맑아진 마음과 기도의 힘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함께 맑혀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051)867-9944



◇범주 스님의 '포대화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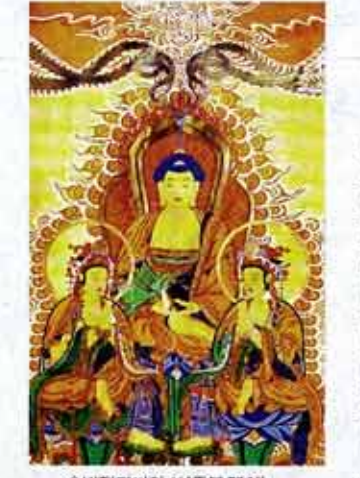


◇성타스님의 '범야사 금강암 가는길'

만행 현장 회폭에 담은 성타스님 산사 그림전

품들을 위해 20여곳 이상의 산사를 만행하며 현장에서 대부분 작업을 했다. 그래서 스님의 그림에는 사실적이고도 담백한 서정미가 느껴진다. 018)609-8011

산사의 사계를 화폭에 담은 성타 스님(서울 노유동 용문선원의 네번째 '산사 그림전'이 11월 20일까지 합천 해인사 구공루 특설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금강암 가는길', '금정사의 가을', '지리산 천은사', '관악산 연주암', '연꽃', '달마도' 등 50여점이 선보인다. 특히 6개월간 머물면서 수행하며 그린 '백련암', '국일암', '악수암' 등 해인사 산내암자들의 그림이 인상적이다. 관념산수화가 아닌 사물의 실제 모습에 근접한 실경산수화를 즐겨 그리는 스님은 이번 작품을 위해 20여곳 이상의 산사를 만행하며 현장에서 대부분 작업을 했다. 그래서 스님의 그림에는 사실적이고도 담백한 서정미가 느껴진다. 018)609-8011



◇박정자씨의 '삼존불 탕화'

전통불화, 그 아름다움展 박정자씨 23일까지 개최

불화가 박정자씨의 제3회 전통불화 그 아름다움展이 2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2층 신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후불탱화, 아미타탱화, 본존아미타불도, 금니삼존도, 선종탱화 부분도, 문수보살도 등 절집에 볼 수 있는 다양한 불화 2백여점이 전시된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중에는 사찰 봉안용 탕화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실 수 있는 만다라화, 소품을 비롯해 단청문양의 특존도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불화는 역시 사찰에 모셔진 것을 감상해야 제 맛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탕화 명법사, 장흥 보림사, 대구 대성사 등에 가도 박정자씨의 불화를 만날 수 있다.

가을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옥대사님께서 효행을 실천한 사찰로서 성모님 묘소의 더불어 조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옥대사께서 육신 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재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선운사, 내소사, 개암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 도량에 왕림 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전주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계방면으로 10분 - 성모암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IC, 서김계IC에서 5분거리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중무소 ☎ (063) 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Homepage : www.sungmoam.net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모암 대중일동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그램에서 불가장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제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이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해 해수들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여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발인,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어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약을 섞었다니 맑게 경계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당원의 원종대학교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장신 향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식적수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광원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 계 지: 경기도 성남시 수평구 북평동 116
- ◆ 대 상: 만 65세 이상 노년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 경 원: 24명~30명 내외
- ◆ 시설개요: 본 건물 → 방규오(약 7평) 24실(각실 인보존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미용실, 식당, 오락실
- ◆ 입방이부담: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지어부담
- ◆ 연 락 처: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영물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넓다
- 부처님을 모시고 영물과 기도장전으로 마음을 뒤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마음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여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 홀로계신 시어머니,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